

## 믿음의 투자와 기도(렘 강해 설교 27)

성경말씀: 렘32:1-27

하나님의 이스라엘 회복 약속: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또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재림 시 그들에게 새 마음과 새 언약을 주신다.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에 의해 세워진 언약, 단 한 번 영원히 완전하게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더 이상 죄들로 인한 제물이 필요 없다. 신약의 모든 죄 문제 해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언약을 통해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고후5:17).

1. 내적인 것이다: 돌 판이 아니라 마음 판에 새긴다. 2.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데서 완전히 성장하게 된다. 진리의 영, 3. 죄들의 용서가 이루어진다(34절). 구약에서는 율법을 통해 죄를 알게 되었다(롬 3:20), 이게 끝이다. 그러나 이제 신약에서는 아예 죄 자체를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하신다. 새 언약의 확증: 해와 달과 별들의 규례, 이것들이 영원히 존재하므로 또 다른 새 언약이 필요 없다.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은 신약시대 모든 성도들의 모든 문제를 한 번에 영원토록 완전히 해결한다.

### 증명

대언자가 새 언약의 말씀을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어떻게 듣는 이들에게 이것을 증명할 것인가?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약2:26).

하나님의 또 다른 시정각 교육: 유다의 운명이 가장 위태로운 시점에서 땅을 사게 한다. 그리함으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그들에게 확증해 줄 수 있었다. <믿음의 투자와 기도>

### 믿음의 투자

부동산 투자 언제 하는가? 경기가 좋고 미래 전망이 있을 때 투자한다. 빚을 내서라도 한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부동산 투자는 투자 전문가가 보기에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다.

유다 왕 시드기야의 통치 제10년: 예루살렘의 함락 1년 전(렘39:2)

지금 옥에 갇혀 있다. 그의 사촌 하나멜이 사라고 한 아나돗의 땅은 지금 바빌론 군사들의 점령지 시드기야는 예레미야가 도시와 자기에 대해 말한 것들을 믿지 않고 미워하였고(3-4) 그를 옥에 넣었다.

전쟁의 악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를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

옥에 넣고 그의 입을 닫으려고 애를 썼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딤후2:9).

1. 부동산 거래: 하나님의 말씀(6-8), “하나멜이 와서 땅을 사라고 할 테니 사라.”

거래는 감옥 뜰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졌고 예레미야는 싸인을 하고 돈을 치르고 자기를 섬기던 자 바룩에게 문서를 주었다. 증인들은 이 모든 것을 보고 그가 미친 줄로 알고는 돌아가서 백성들에게 말을 전하였다. “예레미야는 미쳤고 이 와중에 하나멜은 부동산 투자를 잘 한 투자의 귀재”, 어쩌면 은 십칠 세겔을 받고 하나멜은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질렀을 것이다.

갑자기 하나멜이 나타났으면 안 샀을 것이다. 감금 상태, 바빌론 점령, 민족의 암울한 미래, 누가 사겠는가?

바빌론 포로 생활은 70년인데 그때가 되면 예레미야는 죽고 그 땅은 그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 바로 여기에 믿음의 순종이 있다.

2.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배운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결과가 좋지 않을 것으로 보여도 믿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눅5:1-11의 베드로

히11:1, 히11:6

히11:7 노아

히11:8 아브라함

히11:24-26 모세

히11:38 세상과 충돌함

히11:39 약속하신 것을 당대에 받지 못했다

3. 우리는 어떠한가?

예배 참석, 말씀 읽기, 헌금, 아이들 키우기, 결혼, 세상과 분리, 선교/전도, 성경 번역/보급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조금 정신 나간 사람으로 사는 것이 믿음이다.

### 믿음의 기도

이렇게 믿음의 투자를 하고 승리하였지만 믿음의 사람에게도 낙담의 시간이 온다.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 믿음으로 승승장구하는 사람은 없다.

“하나님이 과연 이 땅을 내게 주실까?, 이스라엘이 회복될까?” 의심이 생긴다.

구원받은 뒤에도 의심이 생긴다. 의심과 낙담을 해결하는 방법: 기도(16절), 기도의 형식

1. 아(Ah), 어려움이 생길 때 마다 기도할 때에 나오는 말, 영혼의 외침

렘1:6, 태에서 나오기도 전에 대언자, 아, 나는 아이라 말을 하지 못합니다.

렘4:10, 예루살렘의 침공에 대해 주님이 말씀하시자, 아, 주님 왜 우리를 속이셨습니까?

렘14:13, 거짓 대언자들의 횡포를 보고, 아, 주님, 저들이 거짓말로 백성을 속입니다. 어찌할까요?

렘32:17, 40년 동안 예루살렘 파멸 예고, 그런데 갑자기 땅을 사라고 하니 순종하고서는 아, 주님, 말이 되나요? 믿기지 않습니다. 의심이 갑니다.

어렵고 미래가 확실하지 않을 때마다 그는 주님께 기도하고 롬8:26-27의 진리를 경험하였다.

2. 하나님의 위대하신 행적과 성품을 찬양하였다(18-19).

(a) 먼저 창조의 위대함을 찬양하였다(17). 제가 믿음의 투자를 한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저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구원, 부활, 휴거, 새 몸,

(b) 그 뒤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였다(20). 죄와 타락, 죄의 노예, 하나님이 저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땅을 주셨습니다(22). 저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21). 그러므로 믿음의 투자에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c) 하나님의 행적뿐만 아니라 하나님 바로 그분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하였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신실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한 마디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17b). (d)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함(18).

인자하심을 보이시고 심판을 보이시는 공의로운 하나님

(e) 각 사람의 행위를 보시는 하나님(19), 하나님들의 등장도 다 아신다(살전1:3).

한 마디로 제가 신뢰하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이, 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이십니다(18).

3. 내 사정을 아뢴다.

그런데 지금 바빌론 사람들이 도시를 공격하려고 산을 쌓았습니다(24).

이런 상황에서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하였습니다(25). 사람들이 나를 다 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의심이 갑니다. 끝 ★★★

4. 그의 기도: 아무것도 간구하지 않았다.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신 사실들을 알렸을 뿐이다. 바빌론의 침략, 위기, 미래가 없음

“믿음으로 투자하였습니다. 저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임을 잘 압니다. 그럼에도 좀 의심이 갑니다.”

이런 인간적인 기도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위선적인 기도를 미워하신다.

5. 결코 의심하거나 당황하지 않는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의 답변(26-27), “그래 네가 말한 대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네 하나님이다.”

예루살렘을 회복하겠다고 했으니 내가 한다.

새 언약과 새 마음을 주겠다고 했으니 내가 준다.

믿음으로 땅을 사라고 했으니 내가 책임진다. 사랑침례교회 소래 예배당

### 결론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보이지 않는 것에 투자를 한다.

낙심과 의심이 오는 때가 있다. 당연하다. 이때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믿고 기도하자. 그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다. 성경을 읽어야 한다.

믿음의 투자를 하고는 낙담했던 예레미야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이 곧 내 하나님이다. 27절